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우리는 살면서 자주 하는 말이 살기가 점점 더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만은 아닐 것이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국가와 사회 간에 점점 더 불신은 커가고, 실망은 깊어지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즈음 세대에 도덕이나 윤리라는 가치관이 존재 하는지 모르겠다. 현 세대는 시장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세대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련의 모든 행위도 결국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출세도 성공도 돈으로 평가된다.

<시장 지상주의>는 2008 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30 년동안 온 세계를 지배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무너진 시장과 사라진 도덕이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주의의 핵심에 담긴 도덕적 결함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돈으로 사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래 만능 시대에 가장 문제는 첫째가 바로 불평등과 부패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부유한지 가난한지가 중요시된다.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주거지역, 자녀 교육과 학교, 의료서비스 등,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들은 점점 급증하고 있다. 두번째는 시장의 부패 성향이다. 좋은 것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는 시장이 단순한 재화를 분배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돈이 되는 것에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제도, 아동 성매매, 등 뿐만 아니라, 시장의 도덕적 한계는 이보다 훨씬 보편적이고 일상적이다. 즉 사회 관습, 인간관계, 일상생활 등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다시 말해 <돈으로 사려 해서는 안되는 것들>과 <돈으로 사게 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다. 이 글의 제목은 마이클 샌들의 책 제목이다. 27 세 하버드 대학의 최연소 교수이자, <정의란 무엇인가>의 명강의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과 <옳음>, 즉 <행복>과 <정의>의 조화로운이다. 이 글은 그의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인용함을

---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밝힌다. 그의 정치 철학의 한가지 주류는 <행복>이다. 행복 중심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하여 헤겔에서 찰스 테일러에게 이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며, 그 행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윤리와 정치 목표라고 했다. 즉 인간의 삶이 가진 내적 목표를 충실히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량에 대한 이해, 올바른 판단, 그가 속하는 공동체의 가치관과 밀접히 연결된다. 그 핵심 개념이 < 좋음 - the good > 이다. 나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특수성에도 부합되는 보편적 가치를 말한다. 다른 한가지 주류는 <정의>다. 정의는 <옳음 - the right >에서 출발한다. 칸트는 옳음을 통해서만 보편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옳다는 것이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의지가 항상 보편적 입법에 타당하도록 행동하라는 것이다. 셴델은 이 두가지 사상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이라 말할 수 있다. 셴델은 현대의 시장 만능주의는 결코 중립적인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변질된 재화라는 것이다.

그 예로 돈으로 살 수 있는 시장 지상주의, 거래 만능시대의 사례를 조목조목 들면서 비판한다. 몇가지만 예를 들면 -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호텔같은 개인 독실)는 1 박에 \$82 달러, - 인도인 여성 대리모는 \$6,250, - 미국 주식 영주권은 \$500,000, - 멸종 위기의 검은 코플소 사냥권 \$150,000, - 미국 전담의사 휴대폰 전화번호는 연간 \$1,500 에서 \$25,000, - 자녀의 미국 명문대 입학 허가권은 비공개, 그밖에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 이마 혹은 신체 일부를 상업용 광고로 활용 \$777, - 제약회사 약물 실험대상 \$7,500, - 민간 기업에 고용되어 용병으로 전쟁 참가는 매달 \$250 에서 매일 \$1,000 등 다양, - 책 한권 읽을 때 마다 \$2 불 씩, - 학교 출석만 해도 매일 \$1 씩, - 아픈 사람 생명보험 증권 매입 (매년 300 억달러 시장 규모), 비만자가 체중 6Kg 감량하면 \$378, 또 <새치기>에는 - 비행기 우선 탑승권, - 놀이공원 VIP 입장권, - 불임 수술 장여금, - 진료 예약권 암거래, - 대리 줄서기, 그 밖에 대리 사과 서비스, 결혼식 주례와 축사 판매, 선물의 현금화, 돈으로 명예직 사기, 핵폐기장 보상,

청소부 보험, 대기업들의 종업원 사망 채권, 각종 명명권 (광고효과를 위한 경기장, 도로, 건물 등 광고 자리) 등등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사고 파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니 우리도 모르게 모든 생각과 생활은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들 역시 모든 것을 돈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이 되면 관계를 유지하다가 돈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닌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가. 사랑, 우정, 존경, 효도, 믿음, 신뢰, 명예, 의리, 충성, 감사, 나눔, 배려, 자비, 등등 그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면 잃어버렸던 그 훌륭한 가치들을 다시 찾아와야 하지 않을까. 내가 바로 서야, 내 가족이 바로 서고 내 이웃과 사회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닐까.